

주안에서 한길 가는 동역자분들께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완전히 멈추지 않고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혼란가운데 빠뜨리고 있지만, 이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동역자분들의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곳은 3~5월 최고조의 무더위가 지나고 간간이 내리는 소낙비에 뜨거움이 해갈되는 듯합니다. 예상외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기존의 교육과정과 사역의 변화들이 생겨나는 걸 보면서 사람의 일은 정말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3월 중순에 내려진 휴교령은 현재 3차례에 걸쳐 11월까지 연장되었고, 집회금지도 9월까지 연장된 상황입니다.



<권용승.김이선선교사 가정 송별>

장기간의 휴교로 학생들 대부분이 고향에 내려가 있어서 인터넷 영상 수업이 제대로 되질 않고 학생들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원래 예정대로라면 9월초 졸업을 앞두고 마지막 학기 수업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시골에도 인터넷 사정이나 핸드폰의 데이터 사용이 원활하지 않아서 11월까지 영상 수업을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 지난주부터 일주일에 두 번 대면 수업을 8월말까지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 반은 아직 고향에 있는 학생들을 제외하고 2~3명이 수업에 참석하고 있는데, 출입 전에 온도체크와 손 세정을 하고 일부는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있지만 더위 때문에 벗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들과 교

사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영상수업과 대면수업의 모든 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캄보디아 정부에서 코로나 방역 대책으로 캄보디아에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2주의 격리시설 이동과 과도한 경비 지불(1일 기준 \$165)을 요청하고 있어서 출입국이 자유롭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미 비자를 가진 사람에 한해서 기존의 건강진단서와 보험증서를 제출하지만 그것과는 별도로 강제 검사와 격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국민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공항 출입 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어서 외국인과의 차별을 두고 있어 현지 한국대사관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 3달 만에 만난 학생들을 보니 건강하고 밝아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고향에 있어도 더위 때문에 고생이어서 하루빨리 학교로 돌아오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 답답함을 느낍니다. 저는 일주일에 두 번 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11월에 새 학생 모집과 교육 프로그램 준비와 학교 환경 작업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도 9월까지 금지가 되어 인터넷으로 한국교회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데, 오래 지속이 되다보니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장기간의 휴식(?)이 마음이 지치거나 마땅히 해야 될 부분들을 놓치지 않길 간절히 바랄뿐입니다.



<기술학교 수업과 행사>

이곳에서 오랫동안 함께 사역했던 선교사 2가정이 한국에 복귀를 하게 되는데(권용승 선교사 가정은 지난주 출국), 코로나가 겹친 지금의 형편상 아직 캄보디아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곳의 제한이 풀릴 때까지 한국에서 기다리고 있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다음 달에 한국 복귀 예정인 선교사 가정은 행정과 회계, 카페 업무를 담당할 젊은 부부인데 현지 여건의 어려움이 있어 지난 5월 중순경에 복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각 센터의 부족한 재정 상황과 동역자들의 빈자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로 잘 채워질 수 있기를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생각지도 않게 3번 째 행정과 회계업무의 공백이 생기면서

제가 다시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20여 년 간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교육 도구로 사용했던 한국어 교육을 중단하고 8월까지 대면수업을 진행하면서 크마에 한국어 교사에게 자료와 교육 내용을 완전히 인계하기 위해 정리 중에 있습니다. 새 학기(11월)에는 새롭게 중국어를 가르치고 학생들 목양을 크마에 선생님(한국에서 신학을 공부)과 함께 담당 할 계획인데, 여러 사역들에 지혜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학생들을 바른 신앙과 믿음으로 이끄는 데 선한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일상이 정체된 듯한 상황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든든하게 붙잡고,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이 한해가 되어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드러내도록 위로와 은혜가 충만하길 기도드립니다.^^

2020년. 6월 12일 박화빈(은미) 울림.